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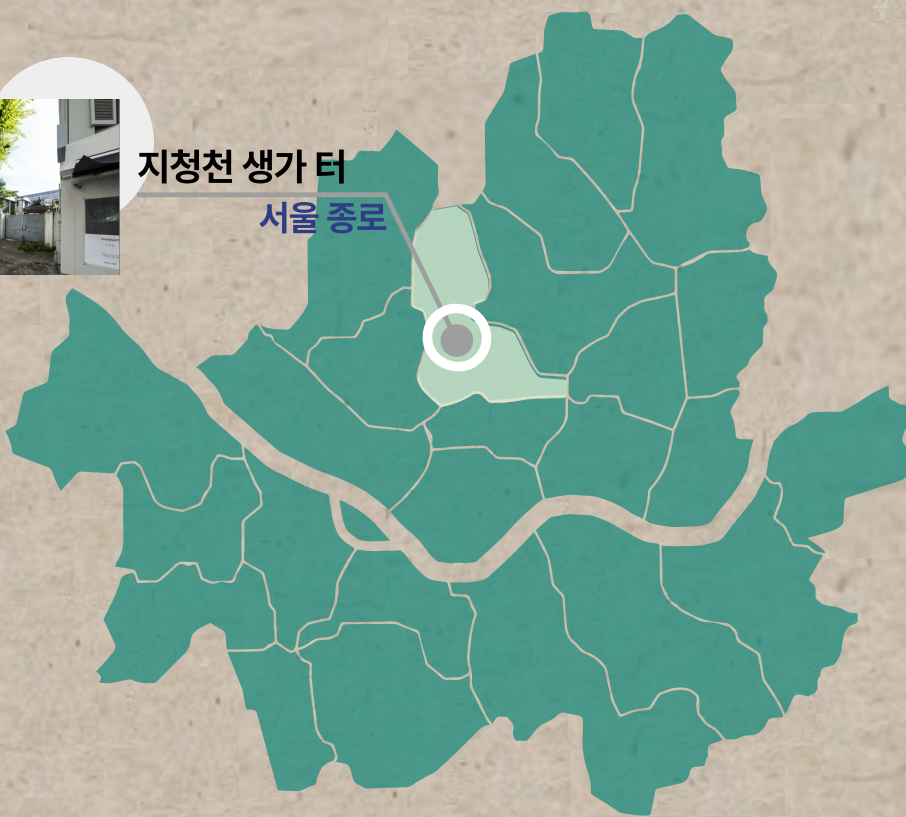
9월의 국내독립운동사적지

— 지청천 생가 터 —

80 광복 80
1945년 8월 15일, 새로운 길



지청천 생가 터
서울 종로



1940년 9월 17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대를창설하다.

독립

독립기념관

韓國光復軍總司令部政訓處編



한국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에서 창설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이다. 임시정부는 수립 초기부터 군대를 편성하여 독립전쟁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1919년 11월 「대한민국임시관제」를 발표하여 군무부의 조직과 직무를 명문화했고, 12월 군무부령 제1호로 「대한민국육국임시관제」를 통해 육군 창설을 구체화했다. 그러나 인적·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행하지 못하다가 충칭에서 드디어 한국광복군(이하 광복군)을 창설하였다.

군사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계기는 1937년 7월 중일전쟁의 발발이었다. 만주에서 독립군을 조직하여 활동한 경험이 있던 유동열, 지청천, 김학규 등이 중심이 되어 7월 15일 군사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군사정책과 활동을 담당했다. 1939년 11월 국무회의에서 군사양성과 독립전쟁 수행에 관한 핵심 계획을 담은 「독립운동방략」을 결정하였고 이로써 한국광복군 창설이 추진되었다.

광복군 창설에는 중국 정부와의 교섭이 필요했다. 중국 영토 내에서 군대를 편성하려면 중국의 승인과 양해가 필요했고 광복군 편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 또한 요청해야 했기 때문이다. 한편 실무적인 준비는 지청천, 이범석, 유동열, 김학규 등 간부들이 맡았다. 이들은 한국광복군 창설위원회를 조직하여 광복군 창설을 준비하며 총사령부 조직과 1년 이내 3개 사단을 편성한다는 부대편성 방안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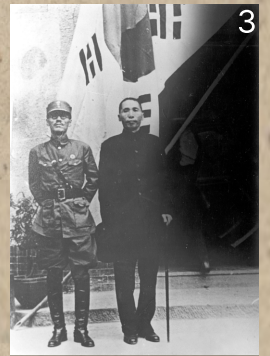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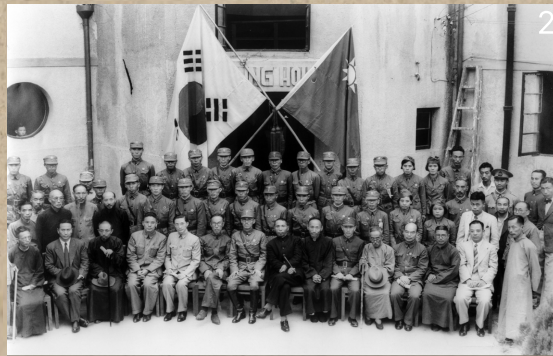
1940년 9월 15일 임시정부는 주석 겸 한국광복군 창설위원회 위원장인 김구의 명의로 「한국광복군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광복군 창설을 대내외에 공포하였다. 선언문에는 독자적이고 자주권을 가진 광복군을 창설하겠다는 임시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한국광복군선언문」

"大韓民國臨時政府는 元년에 정부가 공포한 軍事組織法에 의거하여 中華民國 總統 莊介石 元帥의 특별 허락으로 중화민국 영토내에서 光復軍을 조직하고, 대한민국 22년(1940년) 9월 17일 韓國光復軍總司令部를 창립함을 茲에 宣言한다. 한국광복군은 중화민국 국민과 합작하여 우리 두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자 공동의 적인 일본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聯合軍의 일원으로 抗戰을 계속한다...."



이틀 후인 9월 17일 충칭에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전례식이 열리며 광복군이 창설되었다. 총사령부 성립전례식은 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 및 임시의정원 의원들, 그리고 충칭위수사령관 유치를 비롯한 오철성, 주은래, 동필무 등 중국의 대표 인사들과 충칭 주재 외교 사절 및 신문기자 등 2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1. 한국 광복군 성립 전례식의 개최를 선포하는 김구
2.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후 한중 대표 기념 촬영
3.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후 지청천 총사령과 김구 주석

광복군은 우선 지휘부인 총사령부 설립과 단위부대인 4개 지대 편제로 시작한 후 병력을 모집하여 군대로서의 조직을 갖추어 나갔다. 중국 영토에서 활동하는 제약 아래에서도 광복군은 적극적인 선전 활동을 통해 국제적 여론을 끌어내고 국내외 동포들에게 광복군의 활동과 한국 독립운동의 당위성을 널리 알렸다. 한편 일본에 맞서 국제적 군사작전에 함께하기도 하였다. 연합군의 대일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인도 버마 전선에 공작대를 파견하여 영국군과 함께 대일작전을 수행하였고, 미국 전략첩보국과 합작하여 특수훈련을 받은 광복군 대원들을 국내에 침투시켜 대일전쟁을 수행하는 한미공동작전을 전개하였다.



<창설 초기 총사령부 구성원>

총사령 : 지청천

참모장 : 이범석 고급참모 : 채원개

참모 : 이복원·이웅·김학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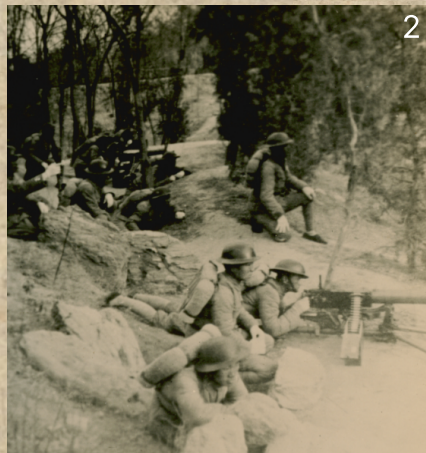
부관 : 나태섭·황학수·조시원·조성환

전령장교 : 고일명·황학수·조시원·조성환

주계장교 : 왕흥·김의한·민영구·이상만

국의 : 유진동·임의탁·엄화근

총사령부는 임시정부의 군사정책을 직접 담당하고 있던 인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군대 조직의 운영과 실전경험을 가진 만주의 독립군 출신 또는 정식 군사교육을 받은 군관학교 출신의 고급 군사간부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총사령부 간부 대부분이 만주의 독립군 출신인데, 이는 광복군이 만주 독립군을 계승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1. 한국광복군 기관지 《광복》 제1권 제 5. 6기 (국가등록문화유산)
2. 한국광복군 대원들의 훈련 사진
3. 한국광복군 단체 사진

4. 한국광복군 제2지대 간부들과 미국 OSS대원들 사진
5. 한국광복군 대원들의 총기술 훈련 사진
6. 한국광복군 대원들의 무선교신 훈련 사진



총사령 지청천은 배재학당과 대한제국 육군사관학교를 거쳐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여 근대적인 군사 지식을 습득한 인물이었다. 또한 신흥무관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하여 수많은 독립군을 양성하는 데 힘썼다. 1919년 11월 서로군정서 사령관에 취임한 후에는 청산리대첩을 비롯하여 1920년대 내내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1930년 7월에 한국독립당 결성 이후 한국독립군을 편성하여 중국군과의 연합 대일항전에 나섰다. 1933년 6월 30일 대전자령 전투에서는 일본군을 상대로 싸워 군수물자 노획에서 최대의 공적을 세웠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로 인해 군대 편성과 무장투쟁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자 임시정부에 합류하여 국무위원, 한국독립당의 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독립전쟁의 구심체 역할에 진력하였다. 1940년 9월 17일 광복군이 창설되었을때 광복군을 대표하는 총사령을 맡았다.

이와 같이 지청천은 주로 만주와 중국 관내 지역에서 활동을 전개하였지만 국내에도 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30-1번지에 위치한 지청천의 생가 터이다. 딸 지복영의 회고로 확인된 이곳은 비록 생가의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입구에 자리한 표지석으로 그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나는 다시 광범위한 광복군을 조직하고자 임시정부 군무부장을 수락하고 무대를 중경으로 옮겨 광복군 조직에 전력을 다하였다. ...(중략)... 중국정부에서도 우리들의 독립운동이 얼마나 자기네들에게 유익한가를 알기 때문에 제반사정에 자연히 동정을 얻게 되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광복군 조직계획을 수립하여 중국정부에 제출하였던 바, 쾌히 승인을 얻어 나 자신이 광복군 총사령관 중책을 맡게 되었던 것이다.”

지청천, <광복군과 나의 투쟁>